# 익산시 반려동물시장 선점 나섰다

## 2028년까지 3250억원 투입
## '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 추진
## 동물용의약품 통합 인프라 구축

익산시가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반려동물시장 선점을 노린다.

익산시는 월성동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인근에 동물케어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벤처·복합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2028년까지 3250억원을 투입해 동물케어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신·변종 감염병의 75%가량이 동물에서 병원체가 유래된 점에 착안한 사업이다. 동물질병 대응 강화와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련 통합 인프라를 구축, 관련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국내 유일의 국제수준 대형 음압시설을 갖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는 강점을 활용한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를 건립하고 있어 클러스터 구축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가금류 사육과 하림 등 육가공업체 보유, 동물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체 소재 등 이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클러스터에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건립,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동물용 의약품·사료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바이오 신소재 개발, 기업 대량생산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동물신약 벤처타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전체 구상을 4단계로 나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단계별 국가 공모를 통해 국비 예산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 집적화와 전후방 산업 활성화 등 동물케어 분야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동물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고병원성 AI 막아내자"…군산시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 거점소독초소 24시간 상시 운영
## 만경강 등 철새도래지 방역 강화

군산시는 2월까지 AI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다. 지난해 방역 모습.

군산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기와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운영한다.

군산시는 금강하구둑과 만경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가 속해 있어 언제라도 철새를 통한 질병 발생이 가능한 만큼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해 질병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병원성 AI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차량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초소 1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의 서식지인 철새도래지에 방역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실시하고 추수가 종료된 시점부터 드론·살수차 등을 추가 동원, 차량 소독이 불가한 지역까지 확대 소독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가축질병 전담관으로 구성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와 소독상태를 점검해 고병원성 AI가 농장 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6월을 마지막으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동절기에도 축산농장의 전염병 근절을 위해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은 물론 시민들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학천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청정도시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정읍시, 결식 아동 끼니당 급식비 6000원 지원

##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와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보호자 부재 가구 등의 아동으로 1식당 지원 금액은 6000원이며 아동급식전자카드(일반음식점 이용)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급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급식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학교장, 이·통장, 아동 급식위원, 시민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아동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 예방을 위한 사업인 만큼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더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의 한 축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 13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순창군과 과천과학관과의 업무협약, 황숙주 군수(왼쪽 다섯번째)와 이정모 관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순창군 제공〉

# 순창군, 과천과학관과 과학체험 공간 구축 협약

## 콘텐츠 보급·설치 기술 지원

순창군이 양질의 과학교육콘텐츠 유치·운영을 위해 국립과천과학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창군은 최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황숙주 군수와 이정모 관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창군-국립과천과학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은 순창군이 순창 투자선도지구 내 과학원리체험콘텐츠 보급과 과학 전시시설 구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교육체험의 기회를 확대·재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국립과천과학관으로부터 아치형 다리, 진공에서 낙하 및 공기압 느끼기, 디지털 현미경, 휘어지는 빛 등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았던 과학콘텐츠 상설형 5종과 이동형 7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받게 됐다.

또 과학교육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을 포함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순창 어린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게 제공될 예정이다. 군은 우선 국립과천과학관이 지원하는 콘텐츠를 투자선도지구 내 어린이과학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과학기술부의 '어린이과학관 지원사업'에 선정됐던 순창군에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과학관의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덧붙여 어린이과학관에는 놀이터와 도서관 등이 한 건물에 복합시설로 조성되고 있어 순창의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될 전망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고창군,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무료 지원

고창군이 음식점·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안심콜(080) 출입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에 전화해 방문일시, 연락처 등의 내역을 기록하는 출입관리 시스템이다. 저장된 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4주 후 자동으로 폐기된다.

기존의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용 볼펜 사용으로 인한 감염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허위정보 기재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콜 서비스 2000개 통신회선을 확보해 다중이용시설에 고유의 안심콜 서비스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통화요금은 고창군이 전액 지원한다.

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시설 사업주는 읍·면사무소나 시설담당부서, 재난안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지리산에 포도·사과 생산단지 조성

남원시가 지리산 자락인 운봉읍 일대 30㏊를 과실 전문생산단지로 만든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14억원을 들여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 용수원 개발, 농로 포장 등을 하게 된다.

운봉읍 일대는 해발 400~700m의 고랭지로, 맛과 향이 뛰어난 포도와 사과 생산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1억여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원지역의 과실 전문생산단지는 모두 10개로 늘게 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운봉지역은 과일 재배의 최적지인데도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부족해 한해와 수해를 자주 겪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고품질 포도와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